

전세버스 운임 신고제 시행... 널뛰기 사라질까

시간·운행거리 적용해 시간·거리당 운임 병산 제주도, 전세버스조합 등 대상 의견수렴 진행 하루 최대 대형 57만원·중형 35만원으로 조정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가 12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과도한 할증이나 덤핑요금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운임·요금 적용은 전세버스 이용에 따른 기본운임에 출발시간과 지점 기준 소요 시간과 운행 거리를 적용해 시간·거리당 운임이 병산된다. 제주도에 등록된 전체 전세버스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은 대형버스의 경우 기본운임 14만9685원에 시간당 운임(3만9650원/1h)과 거리

당 운임(1325원/km)이 합쳐지며, 중형버스는 기본요금 7만2330원에 시간당 운임(2만9860원/1h)과 거리당 운임(560원/km)이 추가 적용된다. 2박 3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일자별로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각 일자별 당일운임이 적용되며, 운행시간 적용은 승객 탑승부터 최종 목적지인 회차지나 숙소 등에서의 하차까지로 한다. 하루에 8시간 80km를 운행할 시 대형버스의 경우 57만2885원, 중형

버스는 35만6010원이다. 그동안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됐으나 지난해 12월말 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가 개정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 개정 후 지난 3월 도 전세버스조합으로부터 요금 신고(안)를 제출받고 3차례의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쳤으며, 3일 제주도 교통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됐다. 도 전세버스조합에서 신고한 요금은 2021년 제주도가 시행한 전세버스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7개 시나리오 원가 계산 방식의 운임·요금을 참고해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는 요

금 상한제 성격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신고된 기준 이상으로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향후 업계에서 운임·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 전세버스조합을 통해 제주도에 신고하도록 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에선 전세버스 요금도 렌터카 요금처럼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차가 커 관광객들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상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위기 극복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평균 요금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업계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원기자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전략은?

오늘 국회서 제주도·지방분권도민회의 주최 토론회

국회 개헌 논의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마련과 대국민 공론화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재호·김한규·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하고,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국 개헌 관련 단체인 개헌국민연대, 지방분권전국회의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및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지방분권 필요성에 대해 국회 개헌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국회·정부형태·지방분권) 위원인 박명일 연세대학교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홍안식 건국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에 관한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특별자치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방안을 최종 도출한 뒤 대국민 공론화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국회는 앞서 올해 1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회는 총강·기본권·경제(1분과), 국회·정부형태·지방분권(2분과), 사법부·개헌절차(3분과), 선거·정당제도(4분과) 등 4개 분과로 이뤄졌다. 서울=부미원기자

5~6월 액비 다량 살포기 가축분뇨 처리업체 점검

제주시는 가축 분뇨 액비 주요 살포 시기(5~6월)에 맞춰 관내 재활용신고 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 분뇨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부적정 액비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이 곤란한 지역을 드론으로 촬영해 무허가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설치와 처리 시설 정상 가동 여부, 미신고 초지 액비 살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가축 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된 GPS와 중량 센서를 활용해 가축 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등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했다. 또한 가축분뇨 액비와 정화처리수 성분 검사를 실시해 처리 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해 부적정 가축 분뇨가 반출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예쁘게 자라거라"... 다육화는 만들기 '2023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열린 13일 제주청소년의 거리를 찾은 어린이들이 다육화분심기, 우드티코스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고 있다.

서귀포시, 안덕초·대정고에 '녹색쉼터'

유휴공간에 나무·꽃 식재 서귀포시는 학생들의 친환경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녹색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안덕초등학교와 대정고등학교에 학교 숲 조성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대상 학교 선정을 시작으로 학교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3월 말에 착공해 지난 5월 3일에 완료됐다. 시는 교내 미활용 유휴공간에 교목과 관목 배롱나무 외 15종·749주,

초화류 가지나아 외 14종·1만7000본을 식재했다. 또한 주요 동선에 판석 포장, 아자메트, 옥외용 벤치, 통석의자 등을 설치해 학생들이 교내 녹색공간에서 자연과 어울리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는 현재까지 지역의 22개교에 대한 학교 숲 조성을 완료했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백금탁기자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사업 본격화 되나

기본구상 완료... 주민 설명·15분 도시 연계 용역 사람 중심 중앙·중정·동문·서문로 3km 구간 조성

서귀포시가 동지역 주요 도로의 교통체계 개편과 보행환경 개선으로 지역상권 및 문화공간을 연계한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구축을 본격화한다. 차도 공간을 사람 중심의 거리로 새롭게 단장하겠다는 의지다. 14일 시에 따르면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조성 구간은 중앙로(520m), 중정로(1080m), 동문로(710m), 서문로(670m) 등 원도심을 잇는 주요 도로 4곳이다. 주요 사업은 보행자 중심도로(폭 15~20m)로 3km 구간의 도시숲을 만들고 인도 정비, 가로수, 경관조명, 휴게공간, 쉼터, 수변공간 조성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교통체계 개편으로 확보한 차도공간을 사람 중심의 거리로 리뉴얼하고, 중앙로터리의 교통 혼잡을 개선한다. 또한 원도심 내 주요 도로의 일방통행과 차로수 조정 등 효율적 교통체계 개편은 물론 교통사고 다발구간(2019~21년 61건 발생)인 중앙로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에 대한 설문조사와 워킹토론, 주민설명회 등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향후 '15분 도시' 기본구상을 반영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기본 구상 수립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별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2일 천치동을 시작으로 11일 중앙동, 15일 정방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뤄진 서귀포시민 100인 워킹토론에서는 원도심 도로의 장·단점을 비롯해 심각한 주차문제 해소 방안, 보행자의 도보 이용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의 불편함, 거리의 낮은 조도와 가로수 방지 문제 등이 집중 제기된 바 있다. 백금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달팽이추출물 핵심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량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영양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약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망 좋은 신종품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기기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향)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친해함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에 성숙하며 과실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만감으로 기존 중후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함량 및 높이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친해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키라향, 산화향(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허귤,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행사묘목 판매(신규 010-9258-2202)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사전예약 주문생산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한라농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999번길1(수산리735)